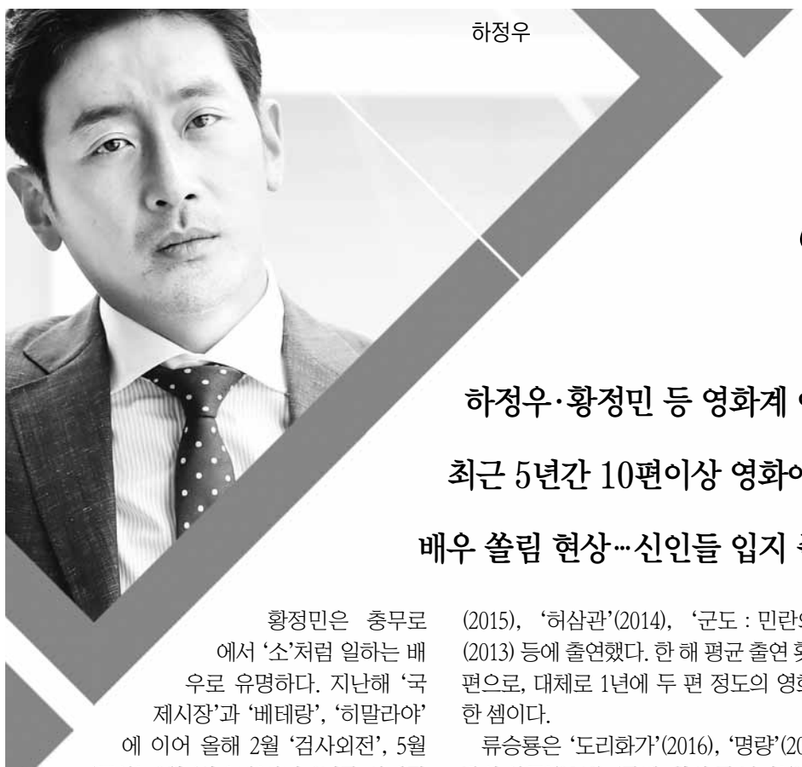


하정우

흥행 배우들 '보고 또 보고'

하정우·황정민 등 영화계 이끌어
최근 5년간 10편이상 영화에 출연
배우 쏠림 현상…신인들 입지 좁아져

황정민은 충무로에서 '소'처럼 일하는 배우로 유명하다. 지난해 '국제시장'과 '베테랑', '히말라야'에 이어 올해 2월 '검사외전', 5월 '곡성', 9월 '아수라'까지 2년간 사계절 극장가를 책임져왔다.

현재는 송중기·소지섭과 함께 '군함도'(류승완 감독)를 촬영 중이다. 이 영화는 내년에 개봉한다.

황정민이 이렇게 다작할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흥행이다. 그가 출연한 영화는 올해 한국영화 흥행 순위 톱 10에 3편이나 들어있다. 우리나라 국민이 한 해 동안 보는 영화는 평균 4.2편. 흥행 영화만 본다고 가정할 경우 스크린에서 황정민을 여러 번 마주칠 수밖에 없다.

최근 몇 년간 한국영화계에 천만 관객을 동원하는 대작영화들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흥행이 검증된 소수의 배우가 반복해서 나오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관객과 제작자의 이해가 맞아떨어져 나타난 현상이긴 하지만, 한국영화 전체적으로 봐서는 명보다 암이 더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영화계 움직이는 배우 17명…다작 흥행 배우는?=그렇다면 최근 5년간 출연 횟수가 가장 많은 주연급 배우는 누구일까. 2011년 1월부터 2016년 9월 말까지 주연 배우들의 출연 횟수(개봉작 기준)를 집계했다. 흥행배우들의 출연 빈도를 알아보기 위해 관객 수 500만 명 이상을 동원한 영화가 2편 이상인 배우들로 조사 대상을 한정했다. 그 결과 최종 17명의 배우가 추려졌으며, 이 가운데 최근 5년간 가장 출연 횟수가 많은 배우는 각각 11편씩 출연한 하정우와 류승룡으로 조사됐다.

하정우는 '터널'(2016), '아가씨'(2016), '암살'(2015), '허삼관'(2014), '군도 : 민란의 시대'(2013) 등에 출연했다. 한 해 평균 출연 횟수는 1.8편으로, 대체로 1년에 두 편 정도의 영화에 출연한 셈이다.

류승룡은 '도리화가'(2016), '명량'(2014), '7번 방의 선물'(2013), '광해, 왕이 된 남자'(2012) 등에서 인상깊은 연기를 선보이며 명실상부한 흥행배우로 발돋움했다.

2위는 5년간 10편의 영화에 모습을 드러낸 황정민이다.

3위는 9편의 영화에 출연한 김윤석이고 송강호, 손예진, 한효주, 유아인은 각각 7편의 영화에 주연으로 발탁됐다. 설경구·이정재·심은경은 각각 6편의 영화에 출연했고, 손현주·공유는 5편, 강동원·김혜수는 4편을 찍었다.

◇"흥행 위험 줄이려…갈수록 배우풀 좁아져"=이들 배우가 지난 5년간 여러 작품에 출연할 수 있었던 것은 관객과 제작자의 욕구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관객 입장에서는 '믿고 보는 배우'가 나오니까 좋고, 제작자 입장에선 막대한 제작비가 들어간 영화가 '폭망'(폭삭 망함)하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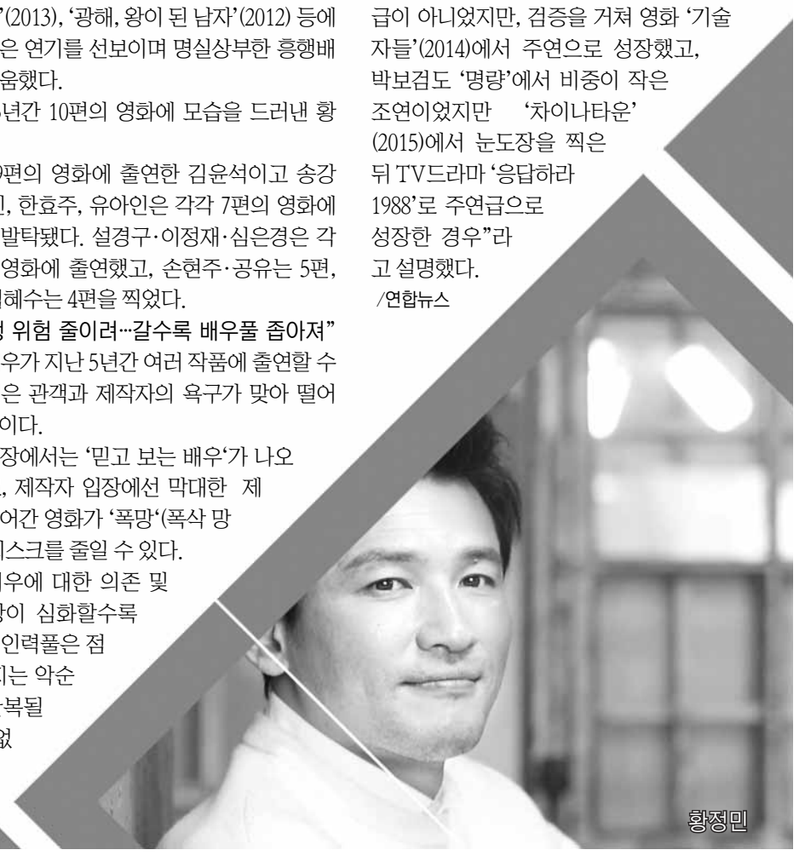
특정 배우에 대한 의존 및 쏠림 현상이 심화할수록 배우들의 인력풀은 점점 좁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 우려에 대해 반박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형호 영화시장분석가는 "송강호가 13년 전 주연을 했을 때 당시 주 관객층은 20대였지만 이 관객들이 이제 30대, 40대가 돼 아직도 송강호라는 배우를 소비하고 있다"면서 "할리우드 배우처럼 한국 배우들도 관객과 함께 나이를 먹고 있는 것이고, 한국영화도 노장 배우가 주연할 수 있는 영화시장이 열리는 과정"이라고 진단했다.

검증된 배우만 계속 기용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CJ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김우빈은 주연급이 아니었지만, 검증을 거쳐 영화 '기술자들'(2014)에서 주연으로 성장했고, 박보검도 '명량'에서 비중이 작은 조연이었지만 '차이나타운'(2015)에서 눈도장을 찍은 뒤 TV드라마 '응답하라 1988'로 주연급으로 성장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황정민

tvN10 Awards

'응답하라 1988' '삼시세끼' 대상 수상

남·여 배우상 이성민·김혜수 수상

'응답하라 1988'과 '삼시세끼'가 케이블채널 tvN 10년 역사상 최고의 콘텐츠로 꼽혔다. 두 프로그램은 최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tvN 개국 10주년 기념 시상식에서 드라마와 예능 콘텐츠 대상을 받았다.

신원호 PD가 연출한 '응답하라 1988'은 따뜻한 가족애를 살려내면서 케이블 역사상 최고 성적을 냈고, 나영석 PD의 '삼시세끼' 어촌편은 '차줌마' 차승원의 활약 속에서 요리 예능 전성시대를 열었다.

예능 대상은 '삼시세끼'와 '꽃보다 할배'의 이서진이, 드라마 대상은 '시그널'의 조진웅이 영예를 안았다. 남자 배우상은 '미생' 이성민, 여자 배우상은 '시그널' 김혜수에게 돌아갔다.

로코킹과 로코퀸 부문에서는 '또 오해영' 서현진과 에릭이 수상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예능 아이콘상은 '꽃보다 할배'에게 돌아갔다.

개근상 주인공은 케이블 최장수 시즌제 드라마인 '막돼먹은 영애씨' 김현숙과 tvN 최장수 프로그램인 '현장토크쇼 택시'의 이영자였다. 최고 진행자로는 강호동과 함께 시상식 사회를 맡은 신동엽('SNL코리아')이 꼽혔다.

아래는 그밖의 수상자 명단.

▲코미디상=안영미·양세형(코미디 빅리그) ▲PD초이스상=이제훈(시그널)·정상훈(SNL코리아) ▲투스타상=조정석(오 나의 귀신님·꽃보다 청춘-아이슬란드) ▲스페셜연기상=성동일(응답하라) ▲대세배우상=류준열·걸스데이 혜리(응답하라 1988) ▲노력하는 예능인상=권혁수(SNL코리아)·이세영(코미디빅리그) ▲신스틸러상=김성균·라미란(응답하라 1988) ▲tvN아시아상=박보검(응답하라 1988·꽃보다 청춘) ▲메이드 인 티비엔(Made in tvN)상=손호준·김슬기·서인국·서현진 ▲베스트키스상=서인국·정은지(응답하라 1997) ▲베스트케미상=박보영·김슬기(오 나의 귀신님) /연합뉴스

'피 땀 눈물' 방탄소년단 음원차트 올킬

그룹 방탄소년단이 정규 2집 '윙스'(WINGS)로 음원차트 정상을 휩쓸며 막강한 화력을 뽐냈다.

10일 공개된 방탄소년단의 2집 타이틀곡 '피 땀 눈물'은 멜론, 지니, 엠넷닷컴, 네이버뮤직, 올레뮤직, 소리바다, 벅스, 몽키3 등 8개 음원차트 1위를 싹쓸이했다.

일부 차트에서는 1~10위까지 앨범 수록곡들이 점령하며 '줄 세우기'를 해 방탄소년단의 위력을 보여줬다. 지난 주 음원차트에서 1세대 아이돌의 위용을 보여준 젝스키스와 차트에서 '롱런'하던 볼빨간사춘기도 차트 정상 자리에서 밀려났다.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차트에서도 위력을 보여줬다. 중국 최대 음원 사이트인 QQ뮤직에서 '피 땀 눈물'은 실시간 인기차트 1위에 랭크됐으며, 정규 2집도 일간 및 주간 앨범 판매 차트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앨범은 2014년 정규 1집 '다크&와일드'(DARK&WILD)이후 2년 만에 발표한 정규 앨범이다. '피 땀 눈물'은 앨범의 주제를 가장 잘 나타낸 곡으로 방탄소년단이 그간 보여준 거칠고 강렬한 모습에서 조금 힘을 빼고 섹시한 매력을 부각한 곡이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1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좋은사람〉	30 KBC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0 닥터 365 25 TV 블로그 꼼지락 30 아침 연속극 〈사랑이 오네요〉
9	30 KBS 뉴스	00 TV 소설 〈저 하늘에 태양이〉 40 여유 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생로병사의 비밀 55 감성애니 하루(재)	00 레시피 추리쇼 음식탐정(재)	00 앙코르 MBC스페셜 〈버리기의 기적〉	00 TV블로그 꼼지락 05 특집 다큐멘터리 〈문명〉 55 닥터 365(재)
12	00 KBS 뉴스 12	05 생생정보 스페셜	00 MBC 정오뉴스 20 TV속의 TV	00 SBS 12뉴스 30 KBC 12뉴스 50 TV블로그 꼼지락 55 세상발견 유레카
1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5 특집다큐 2부작 〈특별한 귀향〉 55 별별가족	00 1 대 100(재)	20 문화사색(재)	55 닥터 365
2	00 제97회 전국체육대회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05 내꺼야 폴록 30 꾸러기 식사교실	00 영재 발굴단(재)
3	55 튼튼생활체조	00 자동공부책상 위키2 30 TV 유치원	00 MBC 뉴스 10 똑? 똑! 키즈스쿨 55 파워배틀 와치카	00 3시, 뉴스브리핑
4	00 4시 뉴스집중	00 영상앨범 산(재) 30 2016 영화의 바다로	2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재)	30 꾸러기 탐구생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VJ 특공대(재)	00 MBC 이브닝 뉴스	00 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 톡톡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2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365 15 고향견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7	00 KBS 뉴스7 35 시사현장 맥	50 일일드라마 〈여자의 비밀〉	15 일일연속극 〈다시 시작해〉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꼼지락 20 일일드라마 〈당신은 선물〉
8	00 집중 인터뷰 이사람 25 별난 가족	30 글로벌 24 55 1대 100	5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맨 인 블랙박스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눈	
10	00 시사기획 창 55 숨터	00 월화드라마 〈구르미 그린 달빛〉	00 월화특별기획 〈캐리어를 끄는 여자〉	00 월화드라마 〈달의 연인-보보경심 :려 〉
11	00 KBS 뉴스라인 40 콘서트 필	10 2016 K-POP 월드 페스티벌 in 창원	10 2016 DMC페스티벌 하이서울어워드 특집	10 불타는 청춘
12	30 인간극장 스페셜		50 MBC 뉴스24	30 나이트 라인

EBS 1

05:00 EBSe 생활영어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알프스산맥 프랑스 몽블랑〉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레이디 버그
07:30 로보카 폴리
07:45 꼬마버스 타요
08:00 딩동댕 유치원1~3
08:45 부릉!부릉! 브루미즈
09:00 방귀대장 뽕뽕이
09:15 출동! 슈퍼윙스
09:30 이얍! 스페이스 정글
09:40 부모 〈위대한 엄마〉(재)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전복 볶음밥과 달걀 김국〉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미스터리 휴먼 다큐(재)
12:40 지식채널e
12:45 숨은 한국 찾기(재)
13:35 뷰티풀 코리아 〈용암이 만든 비경 한탄강〉
13:40 즐거운 수학 EBS MATH
13:50 그림을 그려요(2)
13:55 캐니멀
14:25 정글에서 살아남기(재)
14:55 모피와 친구들
15:05 피터레빗
15:20 야옹멍멍 귀여워(재)
15:35 요술 상자(2)
15:45 코코몽 3
16:15 방귀대장 뽕뽕이(재)
16:30 부릉부릉 부르미즈(재)
16:45 딩동댕 유치원1~3(재)
17:30 로보카 폴리(재)
17:45 꼬마버스 타요(재)
18:0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1~4
19:00 소피 루비
19:30 EBS뉴스
19:50 극한직업 〈가을 잣 채취〉
20:40 다큐 오늘 〈멧돼지 잡는 제주견〉
20:50 세계테마기행 〈대륙의 천하절경, 광시 2부 소수민족의 땅, 룽성〉
21:30 한국기행 〈귀뚜라미 투어 2부 뚝딱 뚝딱 방망이 섬〉
21:50 EBS 다큐프라임 〈부부는 무엇으로 사는가, 2부 같이 사는 이유〉
22:45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23:35 미스터리 휴먼 다큐
24:05 세상의 모든 법칙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11일(음 9월 11일 丙寅)

子 48년생 해묵은 문제점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한다. 60년생 복록의 원천이 생길 것이니 귀히 활용하라. 72년생 지금 열심히 하더라도 헛수고를 하는 셈이다. 84년생 떠나려는 이를 붙잡지 말 것이며, 찾아오는 이를 막지 말라. 행운의 숫자 : 68, 05

丑 49년생 믿었던 바에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라. 61년생 대화로써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동세이다. 73년생 집착은 좋은 기회를 놓치게 할 수도 있다. 85년생 혼란이 따르고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36, 57

寅 50년생 해묵은 쟁점이 속 시원하게 해결될 것이니라. 62년생 의도해왔던 바를 향해 양호한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입지이다. 74년생 상대의 반응에 예의 주시해야 하느니라. 86년생 발전적이고 생산적으로 나아가야한다. 행운의 숫자 : 75, 07

卯 51년생 이해관계 때문에 많이 모여들겠다. 63년생 희귀한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75년생 막연히 부추기는 이들을 주의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87년생 구태를 청산하고 새로운 발전을 위한 쇄신을 해 보는 것도 무방하다. 행운의 숫자 : 37, 59

辰 40년생 진중하게 대하자. 52년생 무쇠도 갈면 바늘이 되는 법이다. 64년생 무리하지 말고 상식선에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니라. 76년생 뜻밖의 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운수다. 88년생 핵심을 찾아야만 결론에 도달한다. 행운의 숫자 : 66, 61

巳 41년생 충분히 실력 발휘를 하고도 남음이 있다. 53년생 과거의 인연이 좋은 기회로 연결시켜 줄 수도 있다. 65년생 자기모순에 빠질 수도 있는 정황이다. 77년생 균형 감각이 절실히 요구된다. 89년생 절차대로 행하는 것이 무난하다. 행운의 숫자 : 44, 86

午 42년생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다른 국세로 탈바꿈할 수도 있느니라. 54년생 돌발적인 변수가 많음을 감안 하자. 66년생 조심성을 잃지 않아야만 위험을 피해갈 수 있느니라. 78년생 미래를 위한 생산적 자양분이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54, 52

未 43년생 사소하다고 여겨왔던 것 속에 해결의 실마리가 숨어 있다. 55년생 주변인의 평에 귀 기울이자. 67년생 완화한다면 다양한 방법들을 구사할 만한 여유가 생기게 된다. 79년생 지난날 못했던 바를 이루는 장거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92, 21

申 44년생 대단히 부담스러워 해왔을지라도 막상 실행하고 보면 쉬울 것이다. 56년생 정면으로 대응하여 승부를 내야만 후환이 없다. 68년생 필수적인 것이 빠져 있어서 당황하겠다. 80년생 요령껏 해소할 수 있어야겠다. 행운의 숫자 : 04, 88

酉 45년생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 방심하지 말라. 57년생 절제할 수 있어야 무탈하다. 69년생 처음부터 아예 거리를 두고 멀리하는 것이 맞다. 81년생 지극히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바가 뜻밖의 판세로 비화 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11, 53

戌 46년생 주관에 사로잡힌다거나 과잉 판단을 한다면 손실이 따른다. 58년생 언행을 무겁게 하고 신중을 기해야만 한다. 70년생 대처해 나간다면 늦게나마 가닥을 잡으리라. 82년생 향방을 좌우할 결정적인 사건이 터진다. 행운의 숫자 : 20, 45

亥 47년생 근본적인 것을 파악하지 않으면 혼란에 빠질 수 있다. 59년생 지금 수습하지 않는다면 상황이 더욱 악화 될 수도 있다. 71년생 건전한 습관의 반복이 성공의 길로 이끄느니라. 83년생 차분하게 임해야 하나씩 해결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87, 55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